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황매산 역새평원을 걸었다. 은빛 물결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언덕 위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어 하늘길을 걷는 듯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쳐도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두둥실 구름 위를 걷는다.

역새평원을 걸다 보니 방탄소년단의 RM의 뮤비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미스터 션샤인이 촬영되었다는 바위에 앉아 너른 역새평원을 바라보니 천하를 얻은 것 같다.

황매산 역새 평원은 ‘연인’ 드라마 주인공 길재와 장현의 헤어지는 장면을 담은 곳이다. 동행과 이별, 저런 이야기를 하며 역새발을 걸으니 어느덧 반대편 정상에 올라와 있다.

‘연인’은 병자호란이 배경인 드라마다. 아픈 역사의 스토리지만 아름다운 서사가 펼쳐져 시청자의 관심이 높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잊갈

리는 연인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드라마다.

그동안 병자호란은 역사극이 중심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말싸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민초의 아픔과 한이 그려진 드라마였다면 연인은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아야만 했던 백성과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가 드라마를 이끌고 있다. 남녀의 아름다운 이별과 만남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서사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인 드라마에서 대표적인 서사는 장현이 길재에게 하는 대사로 장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길재에게 원망이 섞인 “정말 맑군”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연인 드라마는 병자호란을 겪으며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험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을 겪으며 여성의 삶은 더 피폐했다. 연인 17회 명대사는 길재가

‘안아줘야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한 후, 오랑캐에게 욕을 보였으며 가족에게 흠이 되고 싶지 않아 집을 떠나는 길재를 보며 그 시절, 고통과 치욕을 겪으며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멈출 수 없다.

장현은 길재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음에 달려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장현이 “그 무엇 이든 난 길재면 돼”라는 말에 길재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다. 그때 장현은 다정한 목소리로 “안아줘야지 괴로웠을테니”라며 조용히 안아준다. 연인의 가장 아픈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치유의 대사는 시청자도 함께 울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로 역새평원에서 바람결에 휘날리는 역새의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손이 차가울 정도다.

차가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역새 들판을 걷는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시원 가슴은 안고 걷든 이 가을

이 사랑스럽다. 황매산 역새평원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황금빛 물결이 햇살에 부서진다. 산청에서 올라오는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별빛 길이다. 어두운 밤에 이 길을 걸었다며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11월이다.

인류는 전염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오의 햇살을 받으며 끝없이 펼쳐지는 역새발을 걸으며 ‘괜찮아, 괜찮아’ 하며 속삭여 주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속삭임은 나를 위한 노래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에서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불러본다.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들 살다 갔으니 착한 당신 속삭해도 인생이란 따뜻

한거야.’ 위로의 노래를 부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쓸쓸한 계절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넉넉한 미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며칠 뒷편 수능 시험일이다.

해마다 수능이면 수능 추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종종종… 서둘러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올해도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는 따뜻한 국물,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림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안아줘야지’ 차가운 바람 끝에 서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을날이 된다면 삶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소방차전용구역은 비워두자



문 종 명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

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

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본다.

가을철 독감 주의를



오 동 열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고 날이 추워지면 찾아오는 독감 또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 종식선언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더욱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노인과 소아 및 임신부는 독감에 더욱 취약한데 최근 특히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으로 독감의 발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입원율, 사망위험 등을 낮출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독감 백신 예방률을 70~90%로 알려져 있다.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 중이니 참고하여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고 건강하게 한해의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경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광 고 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 · 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레...010-8597-0053
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